여야 2+2 예산안 이틀째 협의도 팽팽한 신경전

국힘 "나라 살림 짜게 도와달라"
민주 "이상민 거취와 연계 말라"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 등 공방

5일 여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로 꾸린 '2+2 협의체'가 이틀째 가동됐지만 팽팽한 신경전만 주고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것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행안부 장관)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정말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이라며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할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갖고 있단 이유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는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간을 내달라면 내 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다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 쓸개란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서 잘한 건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성 정책위의장은 "간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쓸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주 잔인하게 말씀해주셨다"며 "이렇게 예산을 뜯어놓고 보면 여야가 별로 그렇게 날카롭게 대척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올 여름 관악구 등에서 반지하 가구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도 계신 데, 반지하에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올리려면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우리 임대예산이 지난 정부 평균치보다는 높다"며 "지하 전세방 이분들 빨리 좀 더 나은 지상으로 이주하는 데 드는 비용 3000억원을 별도로 편성한 게 임대주택예산 말고 또 별도로 3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이날까지 협상을 진행한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6일부터는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 형식으로 예산안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위해 사열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수출 5대 강국 도약…같이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수출 최일선에서 같이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큰 수출 성과들을 달성했다며 반도체·석유제품·원자력발전·방위산업·농수산식품 분야의 수출 실적을 소개했다.

또 "제가 만난 많은 해외 정상들도 우리 첨단산업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 기업들과 협력을 요청해왔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도전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복합 위기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와 관련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무역금융, 마케팅, 물류 등 수출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정상 외교가 철저히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 등에서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K-콘텐츠를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지역과는 신규 FTA (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 130발 포병사격…"9·19합의 위반"

북한이 5일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같은 날 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한·베트남 관계 새로운 시대…포괄·전략적 동반자"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
"무역과 투자에서 최적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현 정부 첫 국빈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지난 30년간 모범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대통령은 먼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연대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며 "(푹) 주석과의 회담은 1세대의 눈부신 발전을 축하하며 새 세대를 힘차게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푹 주석은 "친절하고 융숭한 환대를 베풀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대외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의 공동번영과 역내·세계의 평화와 안정,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증진하자)"고 화답했다.

푹 주석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에 이은 베트남 권력서열 2위다.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윤 대통령 초청을 받아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했다.

최고 예우인 국빈 방문은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공연을 포함한 대통령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 예포 발사, 각종 문화행사가 수반된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는 공식 환영식이 개최됐다.

양 정상은 봉황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뜻하는 21발의 예포 발사와 양국 국가연주 등이 이어졌다.

양 정상은 재한 베트남 동포 환영단 인사에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후 청사 내부로 이동,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을 했으며 이후 소수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환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주 연속 상승 38.9%

리얼미터 조사…2.5% P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한 데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는 5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8.9%로 지난주보다 2.5% 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2주 전보다는 5.4% 포인트 올라 40%를 목전에 뒀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먼저 보수·중도·무당층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윤 대통령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진보층 지지율도 0.1% 포인트 빠지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며 중도층 이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직업별로는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과 농·임·어업, 가정주부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나 민주노총 총파업이 사회적 약자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이른바 '조직화'하지 못한 이들의 반발 심리가 분출한 게 아니냐는 것이 대통령실의 해석 기류다.

리얼미터 측도 윤 대통령의 이런 접근이 '통했다'고 분석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계 동투(冬鬪)가 호응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에 윤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으냐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